

## 朱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에 대한 고찰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殷哲旼 \*

### A Study on the concept of hidden Yin in summer by Zhu Danxi

Eun Seokmin \*

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concept of hidden Yin in summer by Zhu Danxi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ummer heat disease and hidden yin inside of human body. This paper attempts to ponder upon the clinical issues around which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topic unfolded, and upon the texts on which the doctors of the discussions based their opinions.

**Methods** : First, Danxi's argument as discussed in Gézhīyúlùn is analyzed to find out his understandings of clinical issues and his textual sources on which he based his new perspective. Moreover, the prescriptions that Danxi thought was problematic and the concept of hidden yin as it existed before the time of Danxi are reviewed, and these findings are used understand Zhangjingyue's ground of criticism against Danxi. Lastly, this paper contemplates how these opposing opinions may be helpful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medical theories.

**Results & Conclusions** : There was a trend before the time of Danxi of abusing drugs as prescription based on warm-heat, understanding that a human body has yin-cold during summer. However, Danxi brought forth a new concept of yin deficiency in order to correct people's misunderstanding. Despite his effort, Zhangjingyue and other doctors contemporary to Danxi emphasized on one hand that human body is placed on a state of external heat inside the cold, and on the another, criticized Danxi of failing to fully understand the principle of "Abandon the time and follow the symptoms", a principle which asserts that the cold and warm of medicine should be decided by the symptom itself and not by the season. The value of these contradicting assertions seems to hold true even to this day because it helps us understand that the principles of "Counting Season as a Treatment Factor" and "Abandon the time and follow the symptoms" could be applied with balance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Key Words** : Summer heat disease, Hidden Yin, Zhu Danxi

## 1. 서론

朱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은 여름에 인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伏陰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그의 저작인 『格致餘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丹溪 이전에는 暑病을 다스림에 있어 여름에는 체내에 陰寒으로서의 伏陰이 발생한다는 관념을 따라 溫熱한 성격의 처방을 쓰는 일이 많았는데, 丹溪는 이를 비판하면서 여름의 伏陰을 陰虛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이후 暑病論治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張景岳 등 일부 의가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여름의 伏陰 개념에 대한 논의는 계절에 따른 인체의 변화 및 병증의 양상, 약성의 寒溫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논의가 지니는 의의는 자못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논의의 발생 및 전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伏陰은 대개 임상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일 뿐이라 할 수 있으며, 董蠡 등이 暑病에서 溫熱之劑의 사용을 논하면서 伏陰의 문제를 논하거나 王丹이 여름의 伏陰을 겨울의 伏陽 개념과 비교하여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sup>1)</sup> 하지만 伏陰과 暑病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暑病理論 뿐만 아니라 의학이론 전반의 거시적인 원리의 일단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과 그 전후의 관련 논의들이 어떤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면, 伏陰과 暑病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의학이론에서 어떤 원리적인 면의 함의를 지니는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의 주요 주장과 그 문헌적 근거, 丹溪 이전의 暑病論治에 있어 溫熱之劑의 사용과 伏陰 개념의 전개, 丹溪의 논의에 대한 비판 등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暑病에 대한 伏陰 관련 논의가 의학이론의 일반적 원리의 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朱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

朱丹溪는 『格致餘論』의 「夏月伏陰在內論」에서 여름의 伏陰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天地는 하나의 근원을 가진 氣로부터 만물을 생겨나게 한다.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神機라 하고, 밖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氣立이라 한다. 만물은 이와 더불어 하나이지만 사람이 그 가운데 신령스러운 것은 形이 천지와 더불어 셋을 이룸이니, 그 氣의 바름을 얻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天地의) 氣가 升하면 역시 升하고 氣가 浮하면 역시 浮하며, 氣가 降하면 역시 降하고 氣가 沈하면 역시 沈한다. 사람은 天地와 더불어 하나의 풀무와도 같다. 子月에 一陽이 생하면 陽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고, 寅月에는 三陽이 생하여 陽이 처음 땅 위로 나온다. 이는 氣가 升하는 것이다. 巳月이 되면 六陽이 생하여 陽이 땅 위로 다 나오게 되니, 이는 氣가 浮하는 것이다. 사람의 배는 地氣에 속하며, 이 때에 이르면 肌表에 浮하여 皮毛에 산포되니 鬻속이 허해지게 된다. 經에 이르기를 夏月에는 經이 그득해진다고 하였으니, 地氣가 흘러 넘쳐 經絡으로 들어가 血을 받아 皮膚가 충실해진다고 하였다. 長夏에는 氣가 肌肉에 있어서 表가 實하니, 表가 實하면 裏가 반드시 虛하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여름에는 伏陰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 陰字는 虛함이 있다는 뜻이다. 만약 陰冷하다는 뜻으로 읽는다면 그 잘못이 매우 큰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손으로 배를 만져보면 분명히 冷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陰冷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고,

\* Corresponding Author : Eun Seokmin,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443 Samrye Rd, Wanju County, Jeonbuk, ROK.

Tel : +82-63-290-1475

Email : eskmin@woosuk.ac.kr

Received(21 July 2017), Revised(10 August 2017),

Accepted(17 August 2017)

1) 董蠡, 李艷. 溫熱藥之暑病中的應用. 成都中醫藥大學學報. 1998. 21(4). / 王丹. “夏月伏陰”, “冬月伏陽”探析. 上海中醫藥雜誌. 1987. 第6期.

前人들은 暑病을 다스릴 때 玉龍丸, 大順散, 桂苓丸 등이나 良薑을 홀로 달인 것, 縮脾飲에 草果를 가한 것 등의 溫熱之劑를 썼는데 어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냐고들 묻는다. 나는 말하기를, 봄과 여름에는 陽을 기른다고 하였으니, 王太卜이 봄에 涼한 것을 섭취하고 여름에 寒한 것을 섭취한다고 한 것이 바로 陽을 기르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 뜻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서늘한 정자나 누각에서 쉬면서 부채바람을 쐬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것, 과일이나 얼음 등에 몸을 상한 것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미칠 때 溫熱한 약을 쓰지 않으면 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고도 한다. 이런 경우도 그 뜻을 잘 헤아려보면 사실 안에 (陰寒의) 伏陰이 있음으로 인해 쓰는 것이 아니다. 앞선 현인들은 말하기를 升降浮沈에는 順하도록 하고 寒熱溫涼에는 逆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만약 여름의 火令의 때에 함부로 溫熱한 약을 쓴다면 어찌 實實虛虛의 잘못을 면할 수 있겠는가? 혹은 말하기를 巳月에는 純陽이라는 것은 이치상 통할지 몰라도 五月의 一陰과 六月의 二陰은 陰冷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한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陰이 땅 밑으로부터 처음 動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四陽이 땅위로 떠올라 불같이 타오르면서 金石을 녹일 지경인데 어찌 陰冷이 있겠는가? 孫真人이 生脈散을 만들어 여름에 복용하라고 한 것도 虛함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sup>2)</sup>

2)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22. “天地以一元之氣, 化生萬物. 根于中者, 曰神機, 根于外者, 曰氣立. 萬物同此一氣, 人靈于物, 形與天地參而爲三者, 以其得氣之正而通也. 故氣升亦升, 氣浮亦浮, 氣降亦降, 氣沈亦沈. 人與天地同一橐籥. 子月一陽生, 陽初動也, 寅月三陽生, 陽初出于地也. 此氣之升也. 巳月六陽生, 陽盡出于上矣. 此氣之浮也. 人之腹屬地氣, 于此時浮于肌表, 散于皮毛, 腹中虛矣. 經曰, 夏月經滿, 地氣溢滿, 入經絡受血, 皮膚充實. 長夏氣在肌肉, 所以表實, 表實者, 裏必虛. 世言夏月伏陰在內, 此陰字有虛之義. 若作陰冷看, 其誤甚矣. 或曰, 以手捫腹, 明知其冷, 非冷而何? 前人治暑病, 有玉龍丸, 大順散, 桂苓丸, 單煮良薑與縮脾飲用草果等, 皆行溫熱之劑, 何吾子不思之甚也? 予曰: 春夏養陽, 王太卜謂春食涼, 夏食寒, 所以養陽也. 其意可見矣! 若夫涼台水館, 大扇風車, 陰水寒泉, 果冰雪涼之傷, 自內及外, 不用溫熱, 病何由安? 詳玩其意, 實非爲內伏陰而用之也. 前哲又謂升降浮沈則順之, 寒熱溫涼則逆之. 若于夏月火令之時, 妄投溫熱, 寧免實實虛虛之患乎? 或曰: 巳月純陽, 于理或通, 五月一陰, 六月二陰, 非陰冷而何? 予曰, 此陰之

이상의 내용을 통해 丹溪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름에는 체내에 伏陰이 있다고 하면서 溫熱한 약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伏陰은 사실 陰冷의 의미로 이해되면 안 되고 虛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丹溪는 여름에 玉龍丸, 大順散, 桂苓丸 등의 溫熱한 성격의 처방들이 남용되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丹溪의 관점은 계절에 따른 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素問. 四時刺逆從論』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素問. 四時刺逆從論』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체내 氣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며<sup>3)</sup>, 丹溪는 그 가운데 여름에 관한 부분을 취한 다음 여기에 보충적인 설명을 가한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인체는 天地와 더불어 氣의 흐름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여름이 되면 그 이치에 따라 表가 實해지고 裏가 虛해지게 된다고 보았다. 당시 사람들은 흔히 五月, 六月에 一陰과 二陰이 생하는 것이 바로 陰冷이라고 보았지만, 丹溪는 그것이 단지 陰이 땅 밑으로부터 처음 動하려는 것일 뿐 陰冷이 아니라고 하였고, 오히려 이 시기에는 天地간에 陽氣가 가득하여 陰冷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丹溪의 입장에서는 여름에 溫熱한 성격의 처방을 쓰는 것은 오히려 陰이 부족한 상태에서 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많으며,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王冰과 孫思邈의 예를 제시하였다. 王冰은 『素問. 四氣調神大論』에서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順其根.”이라 한 부분의 “春夏養陽”에 대한 주석에서 “春食涼, 夏食寒, 以養

動于地下也. 四陽浮于地上, 燔灼狹燉, 流金燧石, 何陰冷之有? 孫真人制生脈散, 令人夏月服之, 非虛而何?”

3)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00. “是故春氣在經脈, 夏氣在孫絡, 長夏氣在肌肉, 秋氣在皮膚, 冬氣在骨髓中. 帝曰, 余願聞其故. 岐伯曰, 春者, 天氣始開, 地氣始泄, 凍解冰釋, 水行經通, 故人氣在脈. 夏者, 經滿氣溢, 入孫絡受血, 皮膚充實. 長夏者, 經絡皆盛, 內溢肌肉. 秋者, 天氣始收, 腠理閉塞, 皮膚引急. 冬者蓋藏, 血氣在中, 內著骨髓, 通于五藏. 是故邪氣者, 常隨四時之氣血而入客也, 至其變化不可爲度, 然必從其經氣, 辟除其邪, 除其邪, 則亂氣不生.”

于陽”<sup>4)</sup>이라 하였고, 이는 본래 陰과 陽이 서로 化源이 되는 이치를 따라 봄과 여름에 寒涼한 성격의 음식을 섭취하여 陰을 보전하는 것이 곧 陽을 기르는 길이 됨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봄과 여름에 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 시기에 자칫 부족할 수 있는 陰을 보전함으로써 陽이 지나치게 亢盛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丹溪는 孫思邈이 여름에 生脈散을 복용할 것을 권장했다고 하였는데, 사실 孫思邈의 저작에서는 生脈散을 찾아볼 수 없다. 嚴永淸 등에 따르면 生脈散은 張元素의 『醫學啓源』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으며, 丹溪 이후로 다수의 의가들이 生脈散의 출처를 『千金方』으로 생각한 것은 李東垣이 『內外傷辨惑論』에서 “……名曰生脈散, 孫真人云, 五月常服五味子, 以補五臟元氣, 亦此意也.”라고 한 부분에 대한 丹溪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東垣은 단지 生脈散의 처방구성과 그 활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孫思邈을 언급했던 것일 뿐인데, 丹溪는 生脈散이 孫思邈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한 것이다.<sup>5)</sup> 『醫學啓源』에서는 生脈散에 대해 논하면서 특별히 肺의 氣를 補한다고만 하였을 뿐 특별히 여름과 관련지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sup>6)</sup>, 東垣은 『內外傷辨惑論』의 「暑傷胃氣論」에서 여름에 몸을 補하기 위해 찬 성질의 처방을 복용하는 예로 生脈散을 언급하였으며<sup>7)</sup>, 『脾胃論』에서는 生脈散이 여름에 濕熱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논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sup>8)</sup>. 따라서 丹溪가 生脈散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東垣의 논의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東垣은 暑病과 관련하여 ‘伏陰’의 개념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丹溪는 『內經』과 王冰 등의 논의를 활용하여 伏陰의 개념을 陰虛의 관점에서 논하면서 이를 “夏食寒”의 이론적 기초로 제시한 것이다.

### 3. 暑病에서 伏陰의 의미

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을 이해함에 있어 당시에 暑病에 대한 치료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丹溪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暑病 처방들의 등장과 暑病理論 상의 伏陰의 원류적 의미를 살펴본 다음 丹溪의 주장을 계승한 의가들을 통해 그 논의의 실제적 의의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 1) 暑病에서 溫熱之劑의 사용

丹溪가 夏月伏陰在內論을 주장한 것은 일단 여름에 溫熱한 성격의 처방을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가 夏月伏陰在內論에서 언급한 溫熱之劑로는 玉龍丸, 大順散, 桂苓丸, 縮脾飲 등이 있다. 이들 처방들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모두 暑病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sup>9)</sup>, 그 각각의 처방구성과 主治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順散 (甘草, 乾薑, 杏仁, 肉桂)

: “治冒暑伏熱引飲過多, 脾胃受濕, 水穀不分, 清濁

4)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8. “陽氣根于陰, 陰氣根于陽, 無陰則陽無以生, 無陽則陰無以化, 全陰則陽氣不極, 全陽則陰氣不窮. 春食涼, 夏食寒, 以養于陽, 秋食溫, 冬食熱, 以養于陰.”  
5) 嚴永淸, 吳建新, 錢健雄. 生脈散의 歷代文獻考査. 中國中藥雜誌. 14(5). 1989. p.3  
6) 張元素. 醫學啓源.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7. “麥門冬, 氣寒, 味微苦甘, 治肺中伏火, 脈氣欲絕. 加五味子, 人參二味, 爲生脈散, 補肺中元氣不足, 須用之.”  
7) 李東垣. 內外傷辨惑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545. “夫脾胃虛弱之人, 遇六七月霖雨, 諸物皆潤, 人汗沾衣, 身重短氣, 更逢濕旺, 助熱爲邪, 西北二方寒清絕矣, 人重感之, 則骨乏無力, 其形如夢寐間, 朦朧如煙霧中, 不知身所有也. 聖人立法, 夏月宜補者, 補天真元氣, 非補熱火也, 夏食寒者是也. 故以人參之甘補氣, 麥門冬苦寒, 瀉熱補水之源, 五味子之酸, 清肅燥金, 名曰生脈散. 孫真人云, 五月常服五味子, 以補五臟之氣, 亦此意也.”

8) 李東垣.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591. “火熾之極, 金伏之際, 而寒水絕體, 于此時也. 故急救之以生脈散, 除其濕熱, 以惡其太甚. 肺欲收, 心苦緩, 皆酸以收之. 心火盛則甘以瀉之, 故人參之甘, 佐以五味子之酸. 孫思邈云, 夏月常服五味子, 以補五臟氣是也. 麥門冬之微苦寒, 能滋水之源于金之位, 而清肅肺氣, 又能除火刑金之嗽, 而斂其痰邪. 復微加黃柏之苦寒, 以爲守位, 滋水之流, 以鎮鑿其浮氣, 而除兩足之痿弱也.”  
9) 玉龍丸은 異名을 黃龍丸이라 하며, 『丹溪心法』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볼 수 있는 黃龍丸은 黃連과 好酒를 구성약재로 하는 것으로서 丹溪가 말한 玉龍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相干, 陰陽氣逆, 霍亂嘔吐, 臟腑不調.”<sup>10)</sup>

黃龍丸 (赤亮雄黃, 硫黃, 硝石, 滑石, 明礬, 好麵)  
: 治一切暑毒.<sup>11)</sup>

桂苓丸 (肉桂, 茯苓)  
: “大解暑毒.”<sup>12)</sup>

縮脾飲 (縮砂仁, 烏梅肉, 草果, 甘草, 乾葛, 白扁豆)  
: “解伏熱, 除煩渴, 消暑毒, 止吐利. 霍亂之後服熱藥大多致煩躁者, 并宜服之.”<sup>13)</sup>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丹溪가 언급한 처방들은 그 구성 면에 있어 모두 溫熱한 성질의 약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처방들이 暑病에 대한 通治方의 성격을 지니고 많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大順散의 경우는 이후 暑病과 溫熱之劑의 상관성의 면에서 여러 의가들에 의해 다수 언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李東垣의 경우는 『脾胃論』에서 大順散이 여름에 中暑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sup>14)</sup> 東垣은 暑病 가운데 “動而得之”인 것을 中熱이라 하고 “靜而得之”인 것을 中暑라 한다는 설을 따라 中暑를 陰證이라 하였고, 당시에 大順散이 바로 이 陰證을 다스릴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에 반해 中熱은 陽證에 해당하여 蒼朮白

虎湯 등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蒼朮白虎湯은 본래 朱肱의 『類證活人書』에서 볼 수 있는 白虎加蒼朮湯을 말하는 것이다.<sup>15)</sup> 丹溪도 『丹溪心法』에서 中暑와 中熱을 각각 陰證과 陽證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sup>16)</sup>, 明代의 王綸의 『明醫雜著』에서도 東垣을 따라 暑證에 대한 이른바 ‘備用要方’으로 中暑와 中熱에 각각 大順散과 蒼朮白虎湯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sup>17)</sup>, 暑病에 대한 이 같은 陰證과 陽證의 구분은 매우 폭넓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大順散 같은 溫熱之劑는 대부분 暑病 중의 陰證에 사용되고 있었던 셈이며, 이 같은 조합은 丹溪에게도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丹溪가 暑病에 溫熱之劑의 사용이 과다함을 비판한 것은 당시에 暑病과 관련하여 陰寒의 개념으로서의 伏陰이 부가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中暑라는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체내에 陰寒의 개념으로서의 伏陰까지 상정하면서 溫熱之劑를 과다하게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밖에도 여름에는 체내에 伏陰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陰證이 아닌 경우에까지 溫熱之劑가 잘못 쓰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暑病에 陰證, 陽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일부 暑病 처방들을 상비약으로 마치 通治方처럼 쓰면서 생겨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45.

11) 朱丹溪.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1130.

12)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50.

13)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51.

14) 李東垣.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577. “當此之時, 無病之人, 亦或有二證, 或避暑熱, 納涼于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而煩心, 肌膚大熱無汗, 爲房屋之陰寒所遏, 使周身陽氣不得伸越, 世多以大順散主之是也. 若行人或農夫, 于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熱, 其病必苦頭痛, 發躁熱, 惡熱,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泄, 無氣以動, 乃爲天熱外傷肺氣, 蒼朮白虎湯主之. 潔古云, 動而得之爲中熱, 靜而得之爲中暑. 中暑者, 陰證, 當發散也. 中熱者, 陽證, 爲熱傷元氣, 非形體受病也.”

15) 白虎加蒼朮湯은 石膏, 知母, 甘草, 粳米, 蒼朮로 구성되며, 『類證活人書』에서는 이 처방의 효능에 대해 “治濕溫多汗.”이라 하였다.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p.472.

16) 朱丹溪.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130. “中熱是陽證, 中暑是陰證. 脈沉弱者, 切不可用寒涼藥. 清熱宜天水散, 五苓, 白虎湯皆可. 熱悶恍惚, 辰砂五苓散. 脈弦實, 黃連香薷湯. 熱甚自汗而渴, 便澀者, 五苓分利之, 或桂苓甘露飲. 吐瀉, 脈沈微甚者, 可用附子大順散.”

17) 王綸. 明醫雜著.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p.36-37. “愚按東垣先生曰, 暑熱之時, 無病之人, 或避暑熱, 納涼于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 煩熱無汗, 爲房室陰寒之氣所遏, 名曰中暑, 以大順散熱藥主之. 若行人或農夫于日中得之者, 名曰勞役中熱, 其病必苦頭痛, 躁熱, 惡熱, 肌熱, 大渴, 汗泄, 懶動, 爲天熱外傷肺氣, 以蒼朮白虎湯涼劑主之.”

여하튼 丹溪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伏陰의 개념을 陰寒이 아니라 陰虛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이며, 이 점은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찬바람을 쏘이거나 찬 음식에 상한 경우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陰寒의 伏陰이 있다고 하면서 溫熱之劑를 쓰곤 했지만 丹溪가 이런 경우에 있어 陰寒으로서의 伏陰을 부정한 것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여름에 체내에 陰寒의 伏陰이 실제 있는 상태에서 또 陰寒의 기운이 침습했다면 溫熱之劑를 쓰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丹溪는 여름에 陰寒의 伏陰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陰虛의 상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 때 溫熱之劑를 쓰는 것은 陰虛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丹溪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伏陰을 논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暑病理論에서 伏陰이 본래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丹溪에 의해 새로운 伏陰 개념이 나온 이후의 추가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暑病에서 伏陰의 개념

丹溪가 말한 여름의 伏陰은 陰虛의 의미에 속하고 찬 성질의 것으로 補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暑病理論에서 伏陰은 본래 寒의 의미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楊士瀛의 『仁齋直指方』에 따르면, 暑病은 본래 惡寒 등의 증상이 傷寒과 비슷한 점이 있어 暑病에 傷寒 처방을 잘못 쓰기 쉬운 점이 있다고 하였으며<sup>18)</sup>, 이는 暑病을 다스림에 있어 溫熱之劑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楊士瀛은 또한 暑病 가운데 外熱裏寒의 경우에는 傷暑伏熱의 설에 흔들리지 말고 理中湯 같은 처방을 써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그 증이 여름이 되어 본래 伏陰이 있는데다가 찬 성질의 약을 많이 쓰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거나 해서 초래된다고 보는 것이었다.<sup>19)</sup> 여기에서 伏陰은

陰寒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여름에 몸이 기본적으로 처하게 되는 상태에서 찬 성질의 약이나 지나친 수분섭취 등을 통해 자극을 받아 陰寒의 증을 나타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의 伏陰이 傷暑伏熱의 설에 대비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暑病에서 伏陰이 언급된 것은 본래 伏陰이 暑病論治 전반을 좌우하는 중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름에는 체내에 伏陰이 있으므로 찬 성질의 것을 과다하게 사용해서는 안 됨을 경계하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伏陰을 陰寒의 의미로 언급하는 논의들은 宋代에 傷寒學說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朱肱은 여름에 白虎湯을 쓰는 문제를 논하면서 여름에 陰氣가 안에 있으므로 暑病이나 氣가 虛한 사람에게 白虎湯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sup>20)</sup> 여름에 陰寒의 氣가 체내에 있음을 고려할 때 찬 성질의 白虎湯은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으로 朱肱은 伏陰이란 표현을 계절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으로 臟腑에 虛寒이 생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sup>21)</sup> 한편 羅天益도 『衛生寶鑑』에서 여름에 產婦가 檳榔丸을 복용한 후 사망한 예를 말하면서, 여름에 찬 성질의 것을 잘못 복용하면 寒氣가 중첩되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말하였다.<sup>22)</sup>

p.88. “雖然，夏月伏陰在內，暑家氣虛脈虛，或飲水過多，或冷藥無度，傷動其中，嘔吐不食，自利不渴，此則外熱裏寒，無惑乎傷暑伏熱之說，非理中湯不可也。”

20)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pp.104-105. “夏月天氣大熱，玄府開，脈洪大，宜正發汗。但不可用麻黃桂枝熱性藥，須是桂枝麻黃湯加黃芩石膏知母升麻也。夏月有桂枝麻黃證，不加黃芩輩服之，轉助熱氣，便發黃斑出也。白虎湯雖可用，然治中暑與汗後一解表藥耳，一白虎未能驅逐表邪。況夏月陰氣在內，或患熱病而氣虛人，妄投白虎，往往有成結胸者，以白虎性寒，非治傷寒藥也。”

21)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p.125. “大抵陰毒，本因腎氣虛寒，或因冷物傷脾，外感風寒，內既伏陰，外又感寒，或先感外寒而內伏陰，內外皆陰，則陽氣不守，遂發頭疼，腰重腹痛，眼睛疼，身體倦怠，四肢逆冷，額上手背冷汗不止，或多煩渴，精神恍惚，如有所失。”

22) 羅天益. 衛生寶鑑.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1. “高郎中家，好收方書，及得效藥方，家人有

18) 楊士瀛. 仁齋直指方. 上海.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88. “傷暑脈虛，面垢，自汗，身熱背寒，煩悶大渴，倦怠少氣，毛簕惡寒，或頭疼，或霍亂，或四肢厥冷，但身體無痛，經云，熱則諸毛孔開，故灑然惡寒，體認不精，妄以傷暑爲傷寒，誤人不小。”

19) 楊士瀛. 仁齋直指方. 上海.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그런데 丹溪는 이상의 예들과 달리 伏陰을 陰寒의 의미로 보지 않았던 것이며, 이 같은 관점은 후대 의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丹溪의 논의를 지지하는 관점을 보인 대표적인 의가들로는 王履, 劉純, 孫一奎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의가들은 丹溪의 논의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밝혀거나 자신의 관점을 새롭게 부가하여 관련 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였다.

王履는 『醫經溯洄集』에서 여름에 伏陰을 이유로 大順散을 많이 쓰고 있음을 비판하였는데, 그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靜而得之”의 증을 새로운 관점에서 논하면서 그 중에 大順散이 맞지 않음을 주장한 것이다. 기존에 中暑와 中熱은 “靜而得之”와 “動而得之”로 구분되어 온 것인데, 그는 “動而得之”의 경우는 주로 ‘勞役之人’이 勞役이나 饑飽로 인해 元氣가 상한 상태에서 暑邪를 감수한 것이라 하였고, “靜而得之”는 ‘深堂大廈’의 서늘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다가 頭痛, 惡寒 등을 발하는 경우로서 이를 中暑라 할 수 없고 傷寒이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王履는 기존에 暑病 중 陰證으로 中暑라 했던 것을 暑病이 아닌 傷寒의 틀에서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靜而得之”의 경우에 發散의 효능을 지닌 辛溫輕揚之劑를 써야 한다고 보았고, 만약 大順散을 쓴다면 그 溫中의 작용으로 인해 內煩을 일으키게 될 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大順散이 甘草와 乾薑을 炒하여 쓰는 것으로서 본래 『和劑局方』에서 “冒暑伏熱, 引飲過多, 脾胃受濕”의 경우를 다스린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데,脾胃에 水濕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같은 燥熱한 성격의 처방이 자칫 陰을 더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에 여름에 伏陰의 陰寒이 있다는 이유

로 大順散을 많이 쓰곤 했지만, 그는 丹溪와 같이 伏陰을 陰虛의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陰이 부족한 여름에 大順散을 쉽게 쓰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sup>23)</sup>

劉純은 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을 東垣의 暑病 관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丹溪가 말한 陰虛로서의 伏陰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劉純은 東垣이 『內外傷辨惑論』에서 生脈散을 말한 부분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점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여름에 脾胃가 허약한 상태에서 濕熱이 심할 때 東垣이 生脈散을 사용한 원리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脾胃가 허약한 상태에서 여름에 濕熱이 심하여 身重, 短氣, 四肢萎軟, 行步不正 등이 나타나는 것은 腎水와 膀胱이 모두 竭했기 때문이며, 이 때 급히 肺氣를 滋하여 水의 上源을 補하는 한편 大腸이 邪熱을 받아 溼이 크게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五月에 五味子를 복용하라고 한 것도 大腸을 補하기 위함이며, 生脈散은 여름에 熱로 인해 元氣가 상해 있을 때 찬 성질을 통해 天元の 眞氣를 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sup>24)</sup>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결론적으로 劉純은 丹

23) 王履. 醫經溯洄集. 上海.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1. pp.38-39. “竊謂暑熱者, 夏之令也, 大行于天地之間, 人或勞動, 或饑餓, 元氣虧乏, 不足以禦天令亢極, 于是受傷而爲病, 名曰中暑, 亦名曰中熱, 其實一也. 今乃以動靜所得分之何哉. 夫中暑熱者, 固多在勞役之人, 勞役則虛, 虛則邪入, 邪入則病, 不虛則天令雖亢, 亦無由以傷之. 彼避暑于深堂大廈, 得頭疼惡寒等證者, 蓋亦傷寒之類耳, 不可以中暑名之. 其所以煩心, 與肌膚火熱者, 非暑邪也, 身中陽氣受陰寒所遏而作也. 既非暑邪, 其可以中暑名乎. 苟欲治之, 則辛溫輕揚之劑, 發散可也. 夫大順散一方, 甘草最多, 乾薑杏仁肉桂次之. 除肉桂外, 其三物皆炒者, 原其初意, 本爲冒暑伏熱, 引飲過多, 脾胃受濕, 嘔吐, 水穀不分, 臟腑不調所立. 故甘草乾薑皆經火炒熟, 又肉桂而非桂枝, 蓋溫中藥也. 內有杏仁, 不過取其能下氣耳. 若以此藥, 治靜而得之之證, 吾恐不能解, 反增內煩矣. 今之世俗, 往往不明, 類曰, 夏月陰氣在內, 大順散爲必用之藥, 嗚, 其誤也, 不亦甚歟. 夫陰氣非寒氣也. 蓋夏月陽氣發散于外, 而陰氣則在內耳, 豈空視陰氣爲寒氣, 而用溫熱之藥乎. 陰果爲寒, 何以夏則飲水乎.”

24) 劉純. 玉機微義. 劉純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8. “東垣曰, 夫脾胃虛弱, 遇六七月間河漲霖雨, 諸物皆潤人汗沾衣身重短氣, 甚則四肢痿軟, 行步不正, 腳軟眼黑, 此腎水與膀胱俱竭之狀也. 當急救之, 滋肺氣以補水之上源, 又使大腸不受邪熱, 不令汗大泄也. 汗泄甚則止津

病, 自爲處治, 亦曾有效. 中統庚申五月間, 弟婦產未盈月, 食冷酪苦苜及新李數枚, 漸覺腹中痛, 太夫人以自合檳榔丸七十九服之, 至夜痛尤甚, 恐藥力未達, 又進五十丸, 須臾間大吐且瀉, 其痛增極, 肢體漸冷, 口鼻氣亦冷, 急求醫療, 未至而卒. 後太夫人見子, 訴其由, 曰天命耶, 藥之過耶, 君試裁之. 予曰, 非難知也. 凡醫治病, 虛則補之, 實則瀉之, 此定法也. 人以血氣爲本, 今新產血氣皆損, 胃氣虛弱, 不能腐熟生硬物, 故瀉而痛也, 復以寒劑攻之. 又況夏月陰氣在內, 重寒相合是大寒氣入腹, 使陰盛陽絕, 其死何疑. 難經曰, 實實虛虛, 損不足而益有餘, 如此死者, 醫殺之耳, 非天命也.”

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이 여름에 찬 성질의 것으로 元氣를 補한다고 한 東垣의 논의에 잇닿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孫一奎도 暑病에 대해 여름에 氣가 浮하면서 腹中이 虛해진 상태에서 勞傷 등을 통해 暑邪를 감수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자신의 논의에서 伏陰의 개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丹溪가 여름의 伏陰을 陰虛의 개념으로 논했던 것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는 겨울에 腎水를 보존하는 것이 暑病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라 하였으며, 『內經』에서 精에 대한 논한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經』曰, 冬不藏精者, 春必病溫, 夏必煎厥”이라 하였는데, 사실 『內經』에서는 “冬不藏精”이란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그가 말한 부분은 『素問·金匱眞言論』에서 “夫精者, 身之本也, 故藏于精者, 春不病溫.”이라 한 것과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 辟積于夏, 使人煎厥.”이라 한 것에서 그 내용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暑病과 관련하여 藏精의 문제를 말한 것은 그 역시 東垣의 논의를 따라 여름에 熱로 인해 肺와 腎의 眞陰이 손상되기 쉬움을 말한 것으로서, 精을 藏하지 못하여 元氣가 虛해지면 暑邪에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도 역시 生脈散을 언급하고 있지만, 東垣이 脾胃가 허약한 경우를 중심으로 논한 것이라면 그는 腎水로서의 精을 중심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液, 七神無所根據, 津液相成, 神乃自生, 津者庚大腸所主, 三伏之義, 庚金受囚木無可制, 故風濕相搏, 骨節煩疼, 一身盡痛, 亢則害承乃制, 是也. 五月常服五味子, 是瀉丙火補庚大腸, 益五臟之元氣, 壬膀胱之寒已絕于己癸, 腎水已絕于午, 今更逢濕旺助熱爲邪, 西方北方之寒清絕矣. 聖人立法夏月宜補者, 補天元眞氣, 非補熱火也. 今人夏食寒是也. 爲熱傷元氣, 以人參麥門冬五味子生脈, 脈者, 元氣也. 謹按王太仆曰, 蒼天布氣尚不越于五行, 人在氣中, 豈不應乎天道然. 爲醫者不審陰陽消長升降浮沈之理, 將何所據焉. 故丹溪先生有夏月伏陰在內論, 深明東垣未悉之旨.”

25) 孫一奎, 醫旨緒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2. “生生子曰, 欲防夏之傷暑者, 在于冬之藏精也. 暑者, 火令也, 人與天地, 同一氣, 故天地之氣有升降, 人之氣亦隨之. 夏月六陽之氣盡出于地, 人之腹亦地也, 氣浮于外, 腹中虛矣. 虛而勞動不常, 則病生焉. …… 『經』曰, 冬不藏精者, 春必病溫, 夏必煎厥. …… 孫眞人教人以五月常

이상과 같이, 丹溪의 논의를 지지한 의가들은 丹溪의 논의가 결국 暑病을 다스림에 있어 元氣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東垣에 이어 새롭게 논하고자 한 것이라 하였으며, 이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丹溪의 논의에 보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 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 丹溪의 논의에 대한 비판

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은 이후 일부 의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의가로는 張景岳을 들 수 있다. 그는 『傳忠錄』에 특별히 「夏月伏陰續論」이라는 편을 따로 두어 丹溪의 논의를 비판하였는데, 기본적으로 丹溪가 여름의 伏陰을 虛의 개념으로 논하는 것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伏陰을 陰冷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sup>26)</sup> 이는 景岳이 여름의 伏陰이 의미하는 문제를 陽虛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서, 인체가 겨울에는 外寒內熱의 상태에 놓이는 것과 달리 여름에는 外熱內寒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본 것이다.<sup>27)</sup> 즉 여름에는 陽氣가 升浮하여 몸의 안쪽이 氣虛 즉 陽虛의 상태가 되며, 이는 곧 寒을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景岳이 생각하기에 겨울에 瘡疹의 병이 많은 것에 비

服生脈散, 蓋謂脈者, 氣血之先, 氣血者, 人之神也. 火令熱傷元氣, 以人參能補天真之元氣也. 五味收斂浮散之氣, 不使飛越, 又能滋肺補腎, 庶免二臟眞陰枯竭. 以門冬復脈通心, 生津潤燥. 三味和協, 同爲補劑, 名曰生脈散, 是亦救其冬不藏精之失也. 雖然, 施于體濃未病之先, 力則易爲, 若稟弱既病者, 抑亦難矣, 故善防暑月之病者, 不若保腎水于冬月未病之先也. 東垣論暑, 兼脾胃虛弱而言, 甚爲詳悉, 丹溪載夏月伏陰在內, 戒用燥熱.”

26)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p.903-904. “夏月伏陰在內, 此本天地間陰陽消長之正理. 顧丹溪特爲此論而反乖其義, 因以致疑于人. 其謂何也? 觀其所論曰, …… 此丹溪之言虛, 是因然矣. 若以陰冷二字爲誤, 而夏月禁用溫熱, 此則餘所不服也.”

27)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904. “經曰, 陰主寒, 陽主熱. 又曰, 氣實者, 熱也, 氣虛者, 寒也. 此本陰陽之常性也. 今既云夏月之陽盡浮于外, 則陰伏于內矣, 陰盛則陽衰也, 非寒而何? 陽浮于外, 則氣虛于中矣. 氣虛即陽衰也, 非寒而何? 此固不易之理也. 然而尤有顯然者, 則在井泉之水, 當三冬之寒冽, 而井泉則溫, 盛夏之炎蒸, 而泉源則冷. 此非外寒內熱, 外熱內寒之明驗乎?”



해 여름에는 吐瀉의 병이 많은 것도 결국은 여름에 몸의 안쪽이 寒해지기 때문이었다.<sup>28)</sup>

景岳은 나아가 여름에 언제나 炎熱한 기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름에도 陰證이 발병하여 溫熱한 성격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素問·至眞要大論』에서 “服寒而反熱, 服熱而反寒, 其故何也? 岐伯曰, 治其王氣, 是以反也.”의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丹溪는 단지 旺氣를 다스리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안의 또 다른 이치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sup>29)</sup> 즉 丹溪가 여름에 寒涼한 성격의 처방을 쓴 것은 단지 여름의 旺氣인 熱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일 뿐이며, 運氣상의 변화에 의해 여름에도 나타날 수 있는 陰寒의 기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丹溪는 단지 運氣理論에서 말하는 바 春夏에는 따뜻해지고 秋冬에는 서늘해지는 主氣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안에서 客氣가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알지 못했던 셈이 된다. 또한 景岳은 이와 같은 運氣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모두 血氣陰陽에 서로 다름이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丹溪의 논의가 병의 表裏寒熱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 하였다. 景岳의 입장에서는 결국 여러 요인에 의해 여름에도 陰證이 발병하여 溫熱한 성격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말한 것이며, 丹溪의 논의를 여름에 병을 다스림에 있어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景岳은 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이 『內經』에서 말하는 ‘舍時從

證’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sup>30)</sup>

이상과 같은 景岳의 주장은 또한 당시에 景岳이 실제 목도했던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데, 景岳은 暑病을 다스림에 있어 香薷飲이란 처방을 남용하는 것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景岳에 따르면 당시에 香薷飲은 여름에 防暑를 목적으로 노소를 막론하고 일종의 상비약처럼 쓰이던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景岳은 香薷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약하거나 잘 먹지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香薷가 오히려 체내의 伏陰을 도와 胃氣를 손상시킴으로써 吐瀉腹痛 등의 위험한 증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던 것이다.<sup>31)</sup> 그는 暑病에 香薷飲 같은 寒涼한 성격의 처방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옛사람들이 여름의 伏陰에 대해 附子大順散 등으로 陽氣를 溫補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up>32)</sup> 景岳은 東垣의 清暑益氣湯도 언급하고 있는데, 清暑益氣湯도 蒼朮, 黃柏 같은 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濕熱이 壅滯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3)34)</sup> 景岳은 暑病의 陰證에서 특히 六脈이 微細

28)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904. “今見四時之病, 盛夏每多吐瀉, 深冬偏見瘡疹, 諸如此類, 豈非冬多內熱, 夏多中寒乎?”

29)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915. “據此一說, 則夏月止宜寒涼矣. 而何以帝曰, 服寒而反熱, 服熱而反寒, 其故何也? 岐伯曰, 治其旺氣, 是以反也. 然則丹溪止知治旺氣, 而旺氣有不可治者, 何以不知也? 矧春夏之溫熱, 秋冬有寒涼, 此四時之主氣也, 而風寒暑濕火燥, 此六周之客氣也. 故春夏有陰寒之令, 秋冬有溫熱之時, 所謂主氣不足, 客氣勝也. 所謂必先歲氣, 無伐天和, 亦此謂也. 豈丹溪止知有主氣, 而客氣之循環環復, 又何以不知也? 然此猶以氣令言也. 若人之血氣陰陽, 本自不同, 病之表裏寒熱, 豈皆如一? 設以夏月得陰證而忌用溫熱, 冬月得陽證而忌用寒涼, 則其人能生乎?”

30)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915. “是丹溪止知時熱宜涼, 而舍時從證. 又何以不知也?”

31)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1057. “香薷飲乃夏月通用之藥餌, 常見富貴之家多有備此. 令老少時常服之, 用以防暑. 而不知人之宜此者少, 不宜此者多也. 若誤用之, 必反致疾, 何也? 蓋香薷一物, 氣香竄而性沈寒. 惟其氣竄, 所以能通達上下, 而去菟蒸之濕熱. 惟其性寒, 所以能解渴除煩, 而清搏結之火邪. 然必果屬陽鬱, 果有火邪, 果脾胃氣強, 肥甘過度, 而宜寒畏熱者, 乃足以當之, 且賴其清涼, 未必無益. 若氣本不充, 則服之最能損氣. 火本非實, 而服之乃以敗陽. 凡素稟陰柔, 及年質得半, 飲食不健, 軀體素弱之輩, 不知利害而效尤安用者, 未有不反助伏陰, 損傷胃氣, 而致爲吐瀉腹痛, 及陰寒危敗等證.”

32)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1058. “今患暑證歿, 而手足指甲或肢體青黯, 此皆不究其因, 不溫補其內, 而泛用香薷飲之類所誤也. 又曰, 前證當分別中暑中熱, 脈虛脈沈, 無汗有汗, 發熱不熱, 作渴不渴, 或瀉不瀉, 飲寒飲熱, 辯其陰陽虛實, 不可泛投寒涼之劑. 蓋謂夏月伏陰在內, 古人用附子大順散之類, 溫補陽氣, 厥有旨哉.”

33)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1058. “至若清暑益氣湯內用澤瀉, 蒼朮, 黃柏之類, 必審其果有濕熱壅滯, 方可用之. 否則反緻虧損其陰,

하고 등이 시리고 惡寒이 있거나 嘔逆泄瀉가 있으며 안에 熱證이 없는 경우가 바로 伏陰으로 인해 쉽게 병이 풀리기 어려운 경우라 하였으며, 理陰煎, 理中湯, 大溫中飲, 麻桂飲 등을 속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5)</sup>

한편 明代의 皇甫中은 伏陰과 관련하여 여름에 사람들이 서늘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과일을 먹거나 부채바람을 쐬는 등으로 인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안에 伏陰이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찬 기운을 감촉한 것으로서 中暑가 아니라 感寒에 속한다고 하였다.<sup>36)</sup> 이와 같이 기존에 中暑라 하던 것을 傷寒이라 하는 관점은 王履의 경우와 같지만, 皇甫中은 伏陰을 陰寒의 관점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王履와는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清代의 陳士鐸도 香薷飲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伏陰을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 伏陰을 陰寒의 개념으로 말하면서 暑病에 香薷飲을 사용함으로 인해 寒氣가 가증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sup>37)</sup>.

用當審察.”

34) 여기에서 景岳이 香薷飲과 清暑益氣湯 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王綸의 『明醫雜著』 卷三의 暑病 부분에서 그 내용을 가져온 것이며, 여기에 香薷의 약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부가했을 뿐인 것이다. 『明醫雜著』에서 王綸은 또한 香薷飲의 폐해뿐만 아니라 당시 여름에 薄荷煎湯을 차 대신 마시는 풍습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薄荷煎湯은 사람의 眞氣를 흐트러뜨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마치 川芎湯을 오래 복용하면 갑작스런 사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王綸, 明醫雜著. 北京, 學苑出版社. 2011. p.11. “又有夏間用薄荷煎湯以代茶, 殊不知散人之眞氣, 即久用川芎湯, 令人暴死之類也.”

35)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10556. “若寒邪在表未解, 而六脈微細, 背冷惡寒, 或嘔惡泄瀉, 內無熱證者, 此正伏陰在內, 而邪不易解, 雖在暑月, 亦速宜溫中, 如理陰煎, 理中湯, 大溫中飲, 麻桂飲之類, 皆宜速用, 不可疑也.”

36) 皇甫中, 明醫知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8. “至于素享富貴之人, 其性不耐寒暄, 每至暑月, 即池亭水閣以安其身, 浮瓜沈李以供其口, 環冰揮扇, 以祛其熱, 藤簟竹床以取其涼, 炎蒸不來, 清風滿座, 內有伏陰, 外受涼氣, 汗不流而肌理密, 陰愈侵而陽不發, 卒然昏眩, 寒熱交作, 嘔吐腹痛, 乃爲夏月感寒, 非中暑也. 法當溫以理其中, 辛以散其表, 不可執中暑之說而用治暑之劑也. 宜以生薑, 葱白, 木香, 陳皮, 羌活, 紫蘇之類.”

37) 陳士鐸, 辨證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1. p.360. “人有勞倦中暑, 服香薷飲反加虛火炎上, 面赤身熱, 六脈疾數無力, 人以爲暑火之未消也, 誰知是內傷于中氣乎. 凡人中

## 5. 暑病에 있어 ‘因時制宜’와 ‘舍時從證’

『和劑局方』에서 제시된 暑病 처방들은 이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通治方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후 暑病理論에서 中暑, 中熱의 구분이 생기면서 大順散 같은 처방은 “靜而得之”의 中暑에 쓰이고 中熱에는 蒼朮白虎湯 같은 처방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은 暑病에 溫熱之劑를 많이 쓰는 문제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주로 中暑의 증에 大順散 등의 처방을 많이 쓰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많은 의가들은 大順散 같은 溫熱之劑를 中暑의 陰寒의 증에 쓰면서 여름의 伏陰이란 개념을 많이 언급하였지만, 丹溪는 여름에 체내에 陰寒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陰寒으로서의 伏陰 개념을 비판하였다. 기존의 의가들이 여름에 陽氣가 浮하고 陰氣가 伏한다는 개념을 통해 陰寒으로서의 伏陰을 말했지만, 丹溪는 陰陽升降의 원리를 다르게 설명하는 한편 『素問. 四時刺逆從論』에서 계절에 따른 氣血의 변화를 말한 것을 근거로 伏陰의 개념을 陰虛로 설명했던 것이다. 따라서 大順散 같은 溫熱之劑는 이후 王履가 지적했듯이 冒暑伏熱에 冷飲過多로 脾胃受濕인 경우에만 적합한 것일 뿐, 여름이라는 時令에 기초한 伏陰의 개념을 中暑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溫熱之劑를 남용하는 셈이 된다. 결국 丹溪는 여름에는 陰寒의 伏陰이 있다는 일종의 ‘因時制宜’적인 개념에 대하여 여름에는 陰寒이 아니라 陰虛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또 다른 의미의 ‘因時制宜’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景岳은 이와 같은 丹溪의 ‘因時制宜’의 개념에 대해 여름에 外熱內寒의 상태가 된다는 의미의 ‘因時制宜’를 다시 주장하는 한편 運氣나 체질적 요인 등의 다양한 변화와 관련된 ‘舍時從證’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다.

氣充足, 則暑邪不能相犯, 暑氣之侵, 皆氣虛招之也. 然則內虛發熱, 烏可不治虛而治邪哉. 況夏月伏陰在內, 重寒相合, 反激動虛火之上升, 此陰盛隔陽之症也. 治法宜補陽退陰, 然而陰盛陽微之際, 驟用陽藥, 以入于衆陰之中, 未必不格而不相入, 必熱因寒用, 始能不違陰寒之性, 以奏其助陽之功也.”

‘舍時從證’이란 표현은 본래 羅天益의 『衛生寶鑑』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으로서<sup>38)</sup>, 羅天益은 「舍時從證」이라는 편을 따로 두어 실제 임상례를 통해 그 개념을 설명하였다<sup>39)</sup>. 그 내용에 따르면 羅天益은 附骨疽에 燔針과 丁香柿蒂散을 쓴 후 呃逆이 심하게 나타난 상황에서 이를 外熱內寒의 증으로 보고 乾薑, 附子 등이 들어가는 托裏溫中湯을 사용하였다. 이를 보고 어떤 이가 여름에 乾薑, 附子 등의 溫熱한 성격의 약을 써도 되는지 의문시하였지만, 羅天益은 그 증이 大方의 辛熱之劑가 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여름이라는 조건보다는 證을 우선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여름에 溫熱한 약을 쓰면 좋지 않다는 因時制宜의 관념에 대해 羅天益이 舍時從證의 개념을 들어 반박한 예라고 할 수 있다.

時令과 약성의 상관성을 因時制宜의 관점에서 논한 예로는 일찍이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用寒遠寒, 用涼遠涼, 用熱遠熱, 用溫遠溫, 食宜同法, 有假者反常, 反是者病, 所謂時也.”라 한 부분을 들 수 있다. 『類經』에 따르면, 여기에서 “用寒遠寒, 用涼遠涼, 用熱遠熱, 用溫遠溫, 食宜同法”이라 한 것은 歲氣가 寒涼할 때에는 寒涼한 약을 피하고 歲氣가 溫熱할 때에는 溫熱한 약을 피해야 하며 이는 음식, 거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sup>40)</sup> 그리고 이어 “有假者反常, 反是者病, 所謂時

也.”이라 한 것에 대해서는, 절기에 맞지 않는 기후처럼 氣에 反常의 변화가 있으면 병이 발생하는 것은 時에 어긋나기 때문이라 하였다.<sup>41)</sup>

하지만 이와 같은 因時制宜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帝曰, 善. 論言熱無犯熱, 寒無犯寒, 余欲不遠寒, 不遠熱奈何? 岐伯曰, 悉乎哉問也! 發表不遠熱, 攻裏不遠寒.”이라 하여 “發表不遠熱, 攻裏不遠寒”의 원리를 말한 것은 곧 “用寒遠寒, 用涼遠涼, 用熱遠熱, 用溫遠溫”이라 한 因時制宜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景岳은 『類經』에서 이에 대해 실제로 不可遠寒, 不可遠熱의 경우가 있고 “發表不遠熱, 攻裏不遠寒”이라 한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하였으며, 表에 寒邪가 있을 때 發表를 해야 하는 것이 곧 不可遠熱의 경우로서 이는 여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sup>42)</sup> 이는 곧 여름에 溫熱之劑를 써야 하는 경우의 당위성을 말한 것이며, 因時制宜의 원칙에서 벗어나 舍時從證의 치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景岳은 丹溪와는 다른 陰陽升降의 원리를 바탕으로 여름에 인체가 外熱內寒의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丹溪가 主氣의 변화에만 근거하여 ‘夏食寒’의 因時制宜의 원칙을 말했을 뿐 客氣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또한 사람마다 모두 血氣陰陽의 차이에 따라 병의 表裏寒熱에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점도 丹溪가 묵과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景岳은 丹溪의 논의를 因時制宜의 관점에서 너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舍時從證의 원리에 기초한 치법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法而歲氣當察也.”

38) 張同遠, 楊進. “舍時從證”新析. 江蘇中醫藥, 2016. 48(5). p.6.

39) 羅天益. 衛生寶鑑.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0. “至元壬午五月二十八日, 王伯祿年逾五旬有七, 右臂腫痛, 上至肩, 下至手指, 色變, 皮膚涼, 六脈沈細而微, 此乃脈證俱寒. 予舉瘍醫孫參和視之, 曰, 此乃附骨癰, 開發已遲, 以燔針起之, 膿清稀解, 次日肘下再開之, 加呃逆不絕. 彥和與丁香柿蒂散兩服, 稍緩, 次日呃逆尤甚, 自利, 臍腹冷痛, 腹滿, 飲食減少, 時發昏愢. 于左乳下黑盡處, 灸二七壯, 又處托裏溫中湯, 用乾薑, 附子, 木香, 沉香, 茴香, 羌活等藥, 咀一兩半, 欲與服. 或者曰, 諸痛癢瘡瘍, 皆屬心火, 又當盛暑之時, 用乾薑附子可乎. 予應之曰, 理所當然, 不得不然. 內經曰, 脈細皮寒, 瀉利前後, 飲食不入, 此謂五虛. 况呃逆者, 胃中虛寒故也. 諸痛癢瘡瘍, 皆屬心火, 是言其定理也. 此證內外相反, 須當舍時從證也, 非大方辛熱之劑急治之, 則不能愈也. 遂投之, 諸證悉去.”

40)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0. “遠, 避也. 言用寒藥者, 當遠歲氣之寒, 用涼藥者, 當遠歲氣之涼, 溫熱者亦然. 凡飲食居處之宜, 皆所同

41)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0. “假者反常, 謂氣有假借而反乎常也. 如夏當熱而反寒, 冬當寒而反熱, 春秋亦然, 反者病, 以其違于時也.”

42)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4. “不遠寒, 不遠熱, 謂有不可遠寒, 不可遠熱者, 其治當何如也. …… 發表不遠熱, 攻裏不遠寒. 中于表者多寒邪, 故發表之治, 不能遠熱, 夏月亦然, ……”

## 6. 결 론

朱丹溪의 夏月伏陰在內論은 당시 暑病에 大順散 등의 溫熱之劑를 남용하는 경향을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여름에 체내에 伏陰이 있다는 관념이 暑病에 溫熱之劑를 남용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인데, 여름에 체내에 陰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陰寒의 개념에서 본 것이다. 하지만 丹溪는 伏陰이 陰冷의 의미로 이해되면 안 되고 陰虛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역시 계절에 따른 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素問. 四時刺逆從論』에서 말한 계절별 체내 氣血의 변화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丹溪는 暑病에 溫熱한 성격의 처방을 쓰는 것이 오히려 熱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는 한편,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王冰과 孫思邈의 예를 제시하였다. 王冰은 『素問. 四氣調神大論』에서 “春夏養陽”이라 한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夏食寒”의 개념을 밝혔다고 하였고, 같은 원리로 孫思邈이 여름에 生脈散을 복용할 것을 권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生脈散은 『醫學啓源』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朱丹溪가 生脈散을 언급한 것은 사실 李東垣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伏陰의 개념은 본래 의학이론에서 陰寒의 개념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暑病을 “靜而得之”의 中暑와 “動而得之”의 中熱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던 가운데 주로 陰證에 해당하는 中暑의 경우에 체내의 伏陰으로 인해 寒氣가 내외로 중첩된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溫熱之劑를 쉽게 쓰게 되는 경향을 낳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丹溪 이후로 伏陰을 陰虛의 개념으로 보는 의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王履, 劉純, 孫一奎 등은 그 개념에 맞게 暑病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暑病論治에 있어 東垣과 丹溪의 연결성을 기초로 伏陰 개념을 이론적으로 다시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張景岳 등은 丹溪의 논의에 대한 비판으로 伏陰을 陰寒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이는 인체가 여름에 기본적으로 外熱內寒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景

岳은 丹溪가 단지 運氣상의 主氣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안에서 客氣가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알지 못한데다가 사람마다 모두 血氣陰陽의 조건에 서로 다름이 있음을 간과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景岳은 伏陰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內經』에서 말하는 ‘舍時從證’의 이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름의 伏陰 개념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들은 결국 계절에 따른 인체의 변화와 병증의 양상 및 약성의 寒溫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상반된 성격의 주장은 의가들마다 각기 다른 임상적 환경이나 이론적 관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논의는 의학이론에서 거시적으로 ‘因時制宜’와 ‘舍時從證’의 원리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丹溪가 陰虛로서의 伏陰 개념을 통해 暑病論治에 있어 ‘因時制宜’의 원칙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면, 이에 대한 景岳 등의 비판은 여름에 인체가 外熱內寒의 상태가 된다는 관점을 통해 丹溪의 ‘因時制宜’ 개념을 비판하는 한편 여러 부가적 요인에 따른 ‘舍時從證’의 원리를 함께 증시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References

1. Zhu DX. Gezhiyulun. JinyuanSidajia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6.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2. HuangdineijingSuwen. Beijing. TCM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97.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3. Wang B. ChongguangbuzhuHuangdineijingSuwen. Beijing. Academy Press. 2004.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4. Zhang YS. Yixueqiuyan. ZhangYuansuYixuequanshu. Beijing. China

- Press of TCM. 2006.  
張元素. 醫學啓源.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5. Li DY. NeiwaishangBianhuolun. JinyuanSidajia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6.  
李東垣. 內外傷辨惑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6. Li DY. Piweilun. JinyuanSidajia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6.  
李東垣.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7. Taipinghuiminhejijufa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7.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8. Zhu G. Leizhenghuorensu. Seoul. Namsandang. 1987.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9. Zhu DX. Danxixinf. JinyuanSidajia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6.  
朱丹溪.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10. Wang L. Mingyizazhu. Beijing. Academy Press. 2010.  
王綸. 明醫雜著. 北京. 學苑出版社. 2010.
  11. Yang SY. Renzhaizhizhifang. Shanghai. The Second Military Medical University Press. 2006.  
楊士瀛. 仁齋直指方. 上海.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12. Luo TY. Weishengbaojian. LuoTianyiYi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06.  
羅天益. 衛生寶鑑.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3. Wang L. Yijingsuhuiji. Shanghai. Shanghai Pujiang Education Press. 2011.  
王履. 醫經溯洄集. 上海.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1.
  14. Liu C. Yujiwei. LiuChunYi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CM. 1999.  
劉純. 玉機微義. 劉純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5. Sun YG. Yizhixuwei. SunYiguiYi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CM. 1999.  
孫一奎. 醫旨緒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6. Zhang JY. Jingyuequanshu. ZhangJingyueYi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02.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7. Zhang JY. Leijing. ZhangJingyueYi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02.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8. Huang FZ. Mingyizhizhang.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06.  
皇甫中. 明醫指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9. Chen SD. Bianzhenglu.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11.  
陳士鐸. 辨證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1.
  20. Yan YQ, Wu JX, Qian JX. A Study on the Literature of Sheng Mai Powder of Past Dynasties. China Journal of Chinese Materia Medica. 1989. 14(5).  
嚴永清, 吳建新, 錢健雄. 生脈散的歷代文獻考查. 中國中藥雜誌. 1989. 14(5).

21. Zhang TY, Yang J. A New Study on  
“leaving time and following symptom”.  
Jiangsu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6. 48(5).  
張同遠, 楊進. “舍時從證”新析. 江蘇中醫藥.  
2016. 48(5).